

渤海人の生活

—服飾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副教授 宋基豪

目 次

I. 발해사 개관	3. 가족 생활
II. 발해인의 복식	4. 종 교
III. 그밖의 생활 모습	5. 놀이, 예법, 기타
1. 식 생활	참고문헌
2. 주거 생활	

I. 발해사 개관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698년에 건국되었다. 그로부터 926년에 이르러 거란에 멸망되기까지 230년 가까이 남쪽의 신라와 南北國을 이루었다. 국호는 처음에 振國 또는 震國이라 하였으나, 713년 당나라로부터 渤海郡王으로 책봉되면서 渤海로 고쳐 불렸다. 일본의 역사서, 木簡, 古文書를 통하여 도중에 高麗라는 칭호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渤海 靺鞨 또는 靺鞨渤海로 낮추어 부르기도 하였다.

수도는 처음에 東牟山에 정했지만, 8세기 전반기에 中京으로 옮겼고, 8세기 중반기에 다시 上京으로 옮겼다. 8세기 후반기에도 10여년 동안 東京으로 도읍을 일시 옮긴 적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상경이 계속 수도가 되었다(그림 1). 이 도읍지들은 모두 현재의 중국 吉林省 동부와 黑龍江省 남부에 있었으니, 오늘날로 치자면 대체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 北間島 지방에 해당한다. 발해 영토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쪽으로 러시아

연해주에까지 미쳤고, 서쪽으로 遼東 반도, 북쪽으로 松花江, 남쪽으로 원산반과 대동강을 잇는 선에까지 미쳤다. 따라서 滿洲 동부와 중부, 러시아 연해주, 북한 지역에 걸쳐 있었던 거대한 국가로서, 전성기에는 영토가 사방으로 5천 리에 이르렀다. 이것은 통일신라가 가로 1천리, 세로 3천리라 한 것보다 8배 이상이 크고, 고구려가 동서 3천 1백리, 남북 2천리라 한 것보다 4배가 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해는 대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발해에는 모두 15명의 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국자인 高王大祚榮으로부터 13대왕 大玄錫까지는 『新唐書』 渤海傳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들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계보를 알 수가 없다.

대략적인 발해사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크게 보면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는 818년을 경계로 하여 9대 왕까지이고, 후기는 10대 왕부터이다. 통일신라의 경우도 780년을 경계로 中代(36대 惠恭王까지)와 下代(37대 宣德王부터)로 구분된다. 따라서 발해와 신라 모두 8세기에서 9세기

로 넘어가면서 사회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발해는 중간의 내분기를 거쳐 9세기에 더욱 발전해갔던 반면에, 신라는 9세기에 들면서 내분에 휩싸여 점차 쇠퇴기로 접어들었던 차이가 있다.

高王 大祚榮이 발해를 세운 뒤에, 그의 아들인 2대 武王은 대외정복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3대 文王은 57년이라는 오랜 기간 재위하면서 文治政策을 추진하여 내부 통치에 힘써으로써 발해의 기반을 완성시켰다. 4대 왕부터 9대 왕까지는 귀족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內紛에 휩싸이는데, 이 기간에는 왕이 자주 교체되어 별다른 치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王系가 다른 10대 宣王이 즉위하면서 분위기가 일신되어 증흥을 이루었고, 이때로부터 13대 왕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여 중국으로부터 海東盛國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발해의 隆盛은 14대왕 大璋璿까지 계속되었으나, 마지막 왕인 15대 大諲譔에 이르러 내우외환이 겹쳐서 마침내 926년 1월에 거란에 멸망되었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東丹國(동쪽 거란국)을 세웠다가, 2년 뒤인 928년에 동단국과 함께 발해 유민들을 요동 지방으로 강제로 옮겼다. 그 뒤로 유민들이 주로 요동 지방에서 활동을 벌였고, 이들의 활동은 금나라 초기까지 200여 년간 계속 보이고 있다. 유민들 가운데 일부는 요나라, 금나라의 지배층으로 들어가 활동했는가 하면, 일부는 이 나라들에 저항하면서 定安國, 興遼國, 大渤海國을 세워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은 점차 중국에 흡수되어 사라져 버렸다. 반면에, 멸망 직후부터 유민들이 수시로 고려로 들어와 우리 나라에 편입됐던 사람들도 많았으니, 지금의 태씨들은 바로 그러한 발해 왕실의 후예들이다.

문헌 기록으로서 발해인 자신이 남긴 것이 없고 중국·한국·일본에 아주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데다가, 발해 유적도 중국·한국·러시아의 영

역에 걸쳐 있다. 이런 사정으로 발해사는 남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역사와 연계시켜 바라보고 있다. 한국에서 당연히 이를 한국사로서 다루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발해 역사의 소속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발해사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 연구자가 적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다. 더구나 객관적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자료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분야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사 개설뿐만 아니라, 각 전문 단위의 통사에서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발해인의 복식

발해 복식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발해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겠다. 첫째는 고분 벽화이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에 발견된 貞孝公主 무덤인데, 여기에는 모두 12명이 그려져 있다. 벽화 인물들은 뺨이 둥글고 얼굴이 통통하고 건강미가 있는 모습인데, 모두 남장한 여자들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무덤에서는 사람 얼굴 모양을 한 陶俑 2점도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고분 벽화인 三靈屯(三陵屯) 2호분이 1991년 가을에 上京城 부근에서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도 15명의 인물과 꽃이 그려져 있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풍만하여 앞의 벽화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아직 자세한 것이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는 상경성에서 출토된 벼루에 새겨진 인물상이다. 이 사람은 後脚이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 幘頭를 쓰고 있다. 셋째는 일제시대에 상경성에서 수집된 기마인물 청동상이다. 모두 두

개인데, 하나는 삿갓같은 것을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물상이 아주 단순하게 처리되어 세부를 알 수 없다. 넷째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靑銅像이다. 현재 블라디보스톡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官吏의 모습인지 아니면 樂伎나 舞女와 같은 여인 모습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 일본 正倉院展에서 공개된 인물 그림이다. 털 모자를 쓰고 있는 얼굴 부분인데, 발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和龍縣 河南屯 절터에서 출토된 頭像이 있으나 이것도 발해 것인

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제 구체적으로 복식과 관계되는 자료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문헌에 보이는 복장에 관한 규정이다. 관리의 복장은 지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었다. 1·2·3품은 紫衣·牙笏·金魚袋, 4·5품은 緋衣·牙笏·銀魚袋, 6·7품은 淺緋衣·木笏, 8품은 綠衣·木笏로 규정되어 있었다. 9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나 대체로 8품과 동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보다 상위의 복장을 하였던 사실이 일본에 파견된 예로써 확인된다.

품 계	1·2·3	4·5	6·7	8	9
옷 색깔	紫衣	緋衣	淺緋衣	綠衣	綠衣(?)
笏	牙笏	牙笏	木笏	木笏	木笏(?)
魚袋	金魚袋	銀魚袋			

발해인의 복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정효 공주 벽화이므로,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서술 하겠다. 羨道와 女室의 3벽에 모두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비록 공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그려진 武士(문지기), 侍衛, 內侍, 樂伎(樂士), 侍從을 통하여 공주의 궁중 생활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벽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3). 羨道에는 문을 지키며 경계를 서고 있는 武士 2명이 그려져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사람의 키는 0.98m이다. 서쪽 벽의 무사는 머리에 朱紅色 술이 달린 회색 투구를 쓰고 있는데, 양 옆에는 귀와 목을 보호하기 위한 가리개가 붙어 있다. 열은 노란 갑옷을 입었고, 주홍색 옷셔은 마주 여며 있다. 어깨 위에는 黑灰色 魚鱗文 肩甲(披肩)이 달려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주홍색 緣과 黑色 털 술이 장식되어 있다. 아래 팔에는 흰 바탕에 흑색 꽃무늬가 있는 腕甲(護腕)을 끼고 있다. 허리에는 검은 가죽띠를 착용하고 있다. 왼쪽

허리에 찬 劍을 한 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는 어깨에 맨 鐵槌(鐵槌)를 잡고 있다. 그 아래쪽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동쪽 벽의 무사도 이와 같다. 다만 검은 가죽신을 신은 모습이 더 보일 뿐이다.

현실의 동쪽과 서쪽 벽에는 키가 1.13~1.17m가 되는 인물들이 각각 4명씩 그려져 있다. 서쪽 벽에는 侍衛 한 명을 앞세우고 뒤로 樂伎 3인이 따르고 있다. 侍衛는 상투를 높이 들고 붉은 抹額(帕首)을 썼다. 몸에는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긴 갈색 團領袍를 입고 있다. 옷자락을 걷어올려 허리띠에 땀기 때문에 아래쪽에 열은 노란 內衣가 노출되어 있다. 발등까지 내려온 길다란 내의에는 붉은색과 녹색 무늬가 보인다. 가죽띠를 띠고 있고, 왼쪽 허리에는 활이 들어 있는 활집(弓囊)을 찼다. 활은 등이 붉고 안쪽이 흰데, 흰 곳에는 흑회색 < 형태의 무늬가 있다. 활집 위·아래에도 검은색 구름 무늬가 있다. 오른쪽 허리에는 劍과 箭筒(箭囊)을 찼다. 오른손으로 검을 잡고, 왼손은 검은 철퇴를 잡아 어깨에 메고 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리고, 녹색 꽃무늬가 있는 주홍색 완갑을 끼었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그 뒤로 이어지는 樂伎들은 모두 幘頭를 썼고, 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긴 團領袍를 입고 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악기를 썬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있다. 발에는 미투리(麻鞋)를 신고 문쪽을 향해 서 있다. 둘째 인물은 後脚을 어깨에 늘어뜨린 복두를 썼는데, 상투가 들어가는 巾자가 앞으로 꼬부라져 있다. 붉은 바탕에 흰색·갈색·녹색의 꽃무늬가 있는 團領袍를 입고 있다. 그 안으로 흰색으로 된 中單과 內衣가 보인다. 허리에는 검은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 왼쪽 허리 아래로 헛바닥처럼 생긴 흰색 띠끝(鉞尾)이 보인다.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갈색 주머니를 잡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백회색 꽃잎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주머니에 든 악기는 拍板처럼 보인다. 발에는 미투리(麻鞋)를 신고 있다.

셋째 인물도 복두를 쓰고, 질푸른 단령포를 입고 있다. 단령포의 윗부분에 주홍색 꽃잎과 흰 점으로 구성된 조그만 꽃무늬가 있고, 아랫부분에는 노란 꽃잎으로 된 커다란 꽃무늬가 있다. 그 아래로는 흰색 중단과 주홍색 내의가 드러나 보인다. 허리에는 검은 가죽띠를 띠었다. 두 손으로는 붉은색 주머니를 왼쪽 가슴 앞에서 잡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녹색 꽃잎과 흰 점으로 구성된 꽃무늬가 있다. 주머니 밖으로 길다란 갈색 자루가 나와 있는데, 자루 위에는 꽃잎 모양의 매듭이 저 있고 두 개의 매듭 끈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이로 보건대 주머니 안에는 篋篋가 들어 있는 듯하다.

넷째 인물도 복두를 쓰고, 흰색 바탕에 주홍색과 갈색 꽃잎 무늬가 장식된 團領袍를 입고 있다. 그 안에는 주홍색 중단과 흰색 내의를 입고, 허리에는 검은색 가죽띠를 띠고 있다. 두 손은 갈색 주머니를 왼쪽 가슴 앞에서 잡고 있다. 주머니에는 검은색 꽃무늬가 있다. 악기 형태로 보아서 琵琶를 싸고 있는 듯하다.

동쪽 벽에는 역시 侍衛 한 명을 앉세우고 뒤에

공주를 시종들던 세 명의 內侍가 그려져 있다. 첫 번째 인물이 侍衛로서 서쪽 벽과 거의 같다. 다만 왼쪽 허리에 검과 전등을 차고, 오른손으로 첩퇴를 잡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그려진 첩퇴 그림에는 수정한 흔적이 보여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처음에 방망이를 위로 올려 그렸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향하게 그렸음이 나타나 있다.

그 뒤에 보이는 세 명의 내시도 幘頭를 쓰고, 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긴 團領袍를 입고 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잡고 역시 문쪽을 향해 서 있다. 둘째 인물은 後脚을 어깨 앞으로 늘어뜨린 幘頭를 쓰고, 흰색·갈색·녹색의 꽃잎 무늬가 장식된 붉은 단령포를 입고 있다. 안 쪽으로 흰색으로 된 중단과 내의가 보인다. 허리에는 검은 가죽띠를 띠고 있다. 두 손으로 검은색 주머니에 썬 둥그런 물건을 가슴 앞에서 잡고 있는데, 중간에 붉은 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銅鏡이 아닌가 여겨진다.

셋째 인물도 후각을 늘어뜨린 복두를 쓰고 있다. 질푸른 단령포를 입고 있는데, 옷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보이는 무늬는 두 번째 樂伎와 동일하다. 안쪽으로 흰색 중단과 흰 점으로 구성된 꽃무늬가 있는 주홍색 내의가 드러난다. 두 손은 가슴까지 들어올려 위로 묶은 흰 보따리를 잡고 있다. 보따리에는 주홍색 꽃잎 무늬가 있으나,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넷째 인물도 후각을 어깨 앞으로 늘어뜨린 복두를 쓰고 있다. 흰색 바탕에 주홍색과 갈색 꽃잎 무늬가 있는 단령포를 입고, 그 안에 주홍색 중단과 백색 내의를 입고 있다. 가죽띠를 띠고, 가슴에는 두 손으로 잡은 붉은 보따리가 들려 있다. 보따리에는 흰색 꽃잎 무늬가 있으나,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북쪽 벽에는 키가 1.17m 되는 侍從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면서 얼굴은 약간 문쪽으로 돌리고 있

다. 두 사람 모두 복두를 쓰고, 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긴 단령포를 입고 있으며, 가죽 띠를 띠고, 미투리를 신고 있다. 둘 다 등 뒤로 활을 메고 있다. 서쪽 인물은 후각을 뒤에서 짧게 묶은 복두를 쓰고, 흰색 바탕에 녹색과 갈색 꽃잎 무늬가 장식된 단령포를 입고 있으며, 그 안에 흰색 중단과 붉은색 내의를 입었다. 허리에는 검은색 가죽띠를 띠고 있다. 등(背)이 검고 고자(弭)가 붉은 활을 등에 메고 있다. 전통에는 검은 띠가 달려 있어서 왼쪽 어깨에 걸쳐 오른쪽 허리에 늘어뜨렸다. 전통은 바닥이 둥그런 통 모양이고 가운데에 여러 개의 붉은색 화살이 들어 있다. 두 손으로는 가슴 앞에서 柱杖이나 瓜杖으로 보이는 雙頭の 지팡이를 잡고 있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고 있다.

동쪽 인물도 동일한 복두를 쓰고, 紫色 바탕에 검은 꽃잎이 마름모꼴로 장식된 단령포를 입고 있다. 안에는 주홍색 중단과 붉은색 내의를 받쳐 입었다. 왼쪽 허리에는 위쪽에 짐승 꼬리 장식을 늘어뜨린 전통을 차고 있다. 전통 중간에는 머리를 돌려 뒤돌아보면서 앞다리를 들고 도망하는 황토색 사슴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아랫부분에는 구름 무늬가 있다. 왼쪽 어깨 뒤로 아랫부분에 검은색 구름 모양의 꽃무늬가 있는 활집을 메고 있다. 활은 등이 검고 고자가 붉다. 두 손으로는 흰 점이 있는 붉은색 日傘같은 것을 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얗게 칠한 얼굴은 둥글고 크며 살이 찌서 풍만하다. 눈은 작고, 눈썹은 가늘며, 코가 낮고, 뺨은 둥글고, 붉은 입술은 작고 둥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표현은 대체로 당나라 풍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비록 남자 옷을 입고는 있지만 아주 여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주를 시종들던 남장 여성들로 여겨진다.

이 벽화는 직분에 따른 발해인의 복식도 엿보게 한다. 걸에는 당나라를 비롯하여 그 주변 국가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던 團領袍를 입었다. 그런데 벽화에 보이는 단령포는 깃이 밟아서 목둘레선

에서는 속옷이 보이지 않으나, 옆트임을 통하여 속에 입은 中單·內衣·袴가 드러난다. 소매에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고, 옷자락이 발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다. 겉옷의 색깔에는 갈색, 붉은색, 질푸른색, 흰색, 자색 등이 있는데, 동일한 직분에서 옷 색깔이 각기 다른 점으로 보아서 관복 색깔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닌 듯하다. 이밖에 사료에는 防禦用으로 담비나 표범 등의 가죽으로 만든 갖옷(裘)을 착용한 사실이 보인다.

머리에는 높은 상투를 틀고 幘頭를 썼다. 벽화에는 兩脚을 내려뜨렸는가 하면, 위에서 뭉기도 하였으며, 상투를 넣는 巾子에도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武人들은 抹額이나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다. 투구의 실물은 몇 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正倉院 그림에는 털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는데, 河南屯에서 출토된 순금제 허리띠는 아주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서, 특히 금 알갱이를 촘촘히 붙인 細粒細工(granulation)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죽띠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허리띠 표면에 붙이는 띠꾸미개(鑄板)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사각형 내지 D자형 띠꾸미개이다. 다른 하나는 沿海州를 비롯한 極東 지역에 한정해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사각형이나 원형을 이루는 多孔式 띠꾸미개이다. 러시아 학자는 앞의 것을 突厥式이라 하고, 뒤의 것을 極東式 또는 室韋式이라 부르고 있다. 많은 구멍들은 여러가지 물건을 거는 데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和龍 北大고분에서 발굴된 자료는 사각형과 D자형 띠꾸미개를 어떻게 배열하여 허리띠에 붙였는지를 보여주었다.

발에는 검은색 가죽신(靴)과 미투리(麻鞋)를 신고 있던 것이 보인다. 일본 기록에는 발해 사신이 일본 문인에게 담비 가죽옷(貂裘)과 사향노루 가죽신(暗摸靴)을 준 것이 보인다. 이밖에 연해주

발해 유적과 금나라 유적에서는 새, 두개골 등을 묘사한 아주 작은 세공 조각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러시아학자들은 이것이 일본의 에도시대에 유행하였던 네쯔께(根付)의 원류가 되었다고 보아서, 이들을 일본어 그대로 네쯔께라고 부르고 있다.

여성들도 단령이나 복두 등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東淸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건대, 비너나 뒤꽂이를 꽂고 빗과 거울을 사용하였으며, 팔찌나 반지, 귀걸이, 구슬 등을 착용하였다. 머리에 빗을 꽂은 인골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빗은 장식 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발해에서 생산된 옷감으로는 顯州의 麻布, 沃州의 綿布, 龍州의 明絢가 특산물로서 유명하였다. 이밖에 짐승 가죽도 옷감으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담비 가죽이 애용되었다. 담비 가죽은 당나라나 일본에 자주 보냈고, 지금도 만주에서 3대 특산물의 하나로 되어 있다. 920년 5월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裴璆가 貂裘 1領을 입고서 진기한 것이라고 자랑하자, 일본의 重明親王이 鴨毛車를 타고 黑貂 8襲을 입고 參朝하여 배구가 이를 보고 크게 부끄러워 하였다는 기록은 흥미있는 자료이다. 때는 음력 5월이었으니 초여름에 담비 가죽옷 8벌을 입은 기이한 정경이 벌어졌던 것이다. 반면에, 비단과 같은 고급 옷감들은 당나라나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애용되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교역은 크게 보면 모피와 섬유의 교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927년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냈을 때에 그 물품 속에는 담비가죽 300장이 들어 있었다.

Ⅲ. 그밖의 생활 모습

1. 식 생활

발해 영토가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水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발해 특산물에 盧城의 벼가 있으므로 논의 아

주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이 때의 벼가 발해인지 논 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북위 43도의 추운 지방인 이곳에는 현재 조선족들이 경작하는 논의 준비하게 널려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경작지는 경기도 미사리의 백제시대 밭 자리, 충남 부여 궁남지의 백제시대 논 자리, 전남 광주 신창동의 원삼국시대 沼澤地, 창원 가음정동의 가야시대 논 자리와 조선 후기 밭 자리 등이 고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농경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식은 잡곡이었을 것이다. 발해 건국 전에 물길족(勿吉族)과 말갈족(靺鞨族)은 조(粟), 보리(麥), 메기장(稜) 등을 경작하였다. 연해주의 발해 성터에서는 콩, 모밀, 보리, 수수 등이 채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곡식을 경작하는데 사용되었던 보습이나 보습板, 곡물을 가공하기 위한 맷돌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때로는 갈무리 하였던 저장 창고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곡식 외에 扶餘의 사슴, 鄭頡府(막힐부)의 돼지, 湄沱湖의 붕어, 丸都의 오얏, 樂游(樂浪縣?)의 배와 같은 가축, 물고기, 과일 등이 특산물로 알려져 있었다.

연해주의 발해 성터에서 발견되는 뼈를 분석하여 발해인들이 말이나 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였고, 이밖에 거위, 독수리, 海狸, 곰, 사슴, 염소, 멧돼지, 호랑이, 너구리, 늑대 등도 잡아먹었음이 확인되었다. 발해가 동해 바다와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도 식품으로 이용되었으니, 南海府의 다시마를 비롯하여 蟹(게), 문어, 고래 눈알 등이 유명하였다. 특히 발해의 게는 붉은 색으로 크기가 큰 그릇만하고 집게발이 크고 두터워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한편 발해 사람들이 5월 5일 단오절에 썩떡을 해먹은 기록도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실학자인 柳得恭은 단오절에 썩떡을 해먹는 풍습이 발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음식을 담는 데 사용하였던 그릇들에는 상경에

서 발견된 구름 모양의 자배기 그릇, 화룡 北大 7호분에서 나온 三彩瓶과 三彩碗은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문헌을 보면, 841년에 발해가 당나라 武宗에게 瑪瑙櫃와 紫瓷盆을 바쳤는데, 마노궤는 꼭두서니처럼 질은 붉은 색이었고, 자자분은 마치 기러기 깃털을 드는 것처럼 가벼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877년 6월에 발해 사신 楊中遠이 일본에 바치려 하였던 珍瓏과 玳瑁酒盞 등을 보고 일본 사람인 春日宅成이 옛날에 당나라에 갔을 때에 진기한 보물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기이한 것은 없었다고 하였다.

2. 주거 생활

발해의 중심 지역에는 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았고, 그 안에 주거지를 만들어 살았다. 上京城의 평면 구조는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다. 성 전체의 둘레는 조선시대 서울의 도성과 거의 같은 16km 이상이 되어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당나라 장안성 다음으로 커다란 규모였다. 서울의 광화문 거리에 해당되는 중심대로는 너비가 무려 110미터나 된다.

상경성의 궁전은 모두 7개로 되어 있었고, 각 건물들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건물은 기와로 지붕을 이었는데, 三彩의 鬼面瓦·鷓尾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유약을 바른 기와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궁전이나 관청, 절에서만 사용하였다. 기와집 모습은 연해주에서 발견된 佛板이나 삼경 石燈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지붕에 사용되었던 막새 기와(瓦當)의 문양이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발해의 지배층이나 사찰에 고구려계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주춧돌과 기둥이 만나는 부분에는 도자기를 구워서 만든 둥근 테를 돌려 기둥이 썩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발해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의 고유 문화로서 항상 온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구려 벽화 고분을 보면 주인공들이 평상이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발해의 궁전 가운데에서도 왕이 잠을 자는 건물과 절에서만 온돌장치가 발견되었다. 그것도 방 전체가 아니라 기둥 모양으로 일부에만 고래를 설치한 쪽구들(炕)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온돌 형태가 되면서 民家로, 그리고 전국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고려시대 내지 조선시대에 와서야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만 해도 온돌 바닥보다는 의자나 평상에 앉아서 생활하였을 것이다. 궁전과 관청 밖에는 일반인들이 살았다. 그러나 이들도 지배층에 가까운 평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역은 다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坊이 구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도시 구획은 중국을 본뜬 것으로 최근에 경주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성에서 떨어져 살았을 것이다. 이들의 주거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주거지에서이다. 주거용 건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상에 설치된 가옥이고, 하나는 반지하식 가옥이다. 이들은 모두 선사시대 이래로의 전통적인 움집 형태였다. 대체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서, 그 면적이 지상 가옥의 경우 전기에는 12~28㎡이었다가 후기에 이르면 50㎡에 이른다고 한다. 반지하식 가옥은 조금 작았다. 그리고 전기에는 화덕으로 난방을 하다가, 후기부터 온돌 장치가 딸리는데, 1~3개의 고래가 달려 있어 역시 전면적인 온돌 난방은 아니었다. 주거지에 온돌장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산 위에서 산기슭으로 입지조건이 바뀌는 것은 앞 시대의 말갈족과 다른 모습이다.

3. 가족 생활

먼저 결혼에 관한 것을 보자. 금나라의 기록에 결혼 습속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세종때인 1177년 12월에 발해인들의 약탈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발해의 옛날 습속에는 남녀가 혼인을 할 때에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먼저 남자가 여자를 훔쳐 달아나서 혼인을 하니 詔書를 내려 이를 엄금한다. 이를 범하는 자는 간통한 것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우선 빼앗아오므로써 혼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발해인의 혼인 습속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옛날 습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발해 당시에도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 제도로써 1부1처제가 기본이었음은 무덤에서 확인된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지위가 만만치는 않았던 듯하다. 南宋 시대에 쓰여진 『松漠紀聞』에 이런 귀절이 있다. “부인들은 모두 사납고 투기가 심하다. 大씨는 다른 성씨와 서로 연결을 맺어 10姊妹를 이루었는데, 번갈아가며 남편을 감시하여 남편이 첩(側室)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다른 여자와 연애(交游)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인은 반드시 독을 넣어 남편이 사권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 한 남편이 일을 저질렀으나 자기 아내가 알지 못하면, 나머지 아홉 사람이 모두 일어나 그를 꾸짖으면서 다투어 증오하는 것을 서로 자랑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이 이어진다. 10개의 가정이 생활의 한 단위를 이루면서, 다른 집 여자들이 가정 생활에 관여할 정도로 여성의 힘이 강하였던 듯하다. 이렇게 여자들이 드셧기 때문에 발해 주변에 있었던 “거란, 여진의 여러 나라에는 모두 여창(女娼)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모두 첩(小婦), 몸종(侍婢)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오직 발해에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부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지극하였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楊泰師는 멀리 이국 타

향에서 밤에 잠 못 이루다가 옆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고향에 두고온 부인을 이 여인에 빗대어 그리워하고 있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남겼다.

발해인들 중에는 姓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다. 왕의 성은 물론 大씨였고, 유력한 귀족들의 성으로는 高씨, 張씨, 楊씨, 賀씨, 烏씨, 李씨의 몇 가지에 불과하였다. 그밖에 일반 귀족의 성으로 49개 정도가 확인된다. 이 중에는 신라계 사람들로 보이는 朴씨, 崔씨도 들어 있고, 말갈계로 보이는 성들도 있다. 일반 귀족 아래에는 평민들이 있었고, 그보다 신분이 낮은 천민으로서 部曲과 奴婢가 있었다.

발해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썼다. 무덤에는 돌무덤도 있고 흙무덤도 있으며, 木棺에 넣어 직접 묻기도 하고, 무덤 속에서 불에 태우는 火葬을 하기도 하고, 2次葬을 하기도 하였다. 지배층은 주로 돌로 무덤을 만들었고, 하위 계층 사람들은 흙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은 신분에 따라 각기 달랐으니, 상층 지배층은 무덤 위에 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였으며, 벽화를 그려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무덤 위에 탑을 세운 예는 아직까지 발해에서만 발견된다. 심지어는 무덤 앞에 절을 지어 陵寺로 삼기도 하였다.

4. 증 교

발해인의 종교로서 대표적인 것은 불교이다. 발해 불교의 전통이 고구려에 있었음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명확하다. 절터에서 발견되는 瓦當의 연꽃무늬는 어느 누구도 고구려 것을 계승한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불상들이 당나라 이전 양식을 띠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절터는 모두 40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주로 통치의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불교는 지배층의 신앙이었을 것

이다. 특히 文王은 불교를 크게 숭상하였으니, 그의 尊號에 金輪, 聖法이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딸인 정효공주 무덤을 탑양식으로 짓고 그 앞에 절을 지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발해가 멸망한 한참 뒤에, 금나라 황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발해 유민들의 영향이었다. 이밖에 기독교의 한 갈래인 네스토리우스교파(景敎)가 들어왔던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샤머니즘을 숭상하였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5. 놀이, 예법, 기타

발해인들은 활쏘기, 打毬, 擊毬 등을 통하여 용맹성을 길렀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발해 유적에서 화살촉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발해에서도 사냥과 전쟁을 위해서 많이 발달하였을 것이다. 타구는 지금의 하키 비슷한 것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공놀이를 하는 경기이고, 격구는 지금의 폴로 경기와 비슷한 것으로 말을 타고 하는 공놀이이다. 타구는 원래 페르시아로부터 당나라로 들어온 것으로서 발해까지도 전해졌던 것이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王文矩가 822년 정월에 일본 왕 앞에서 이 경기를 시연하자, 왕은 綿 200屯으로 내기를 걸었고, 이 때 왕과 신하가 시를 지은 것도 전해지고 있다. 또 발해 말기에 거란에서 망명왔던 耶律轄底는 발해인이 毬馬 놀이 하는 것을 틈타서 말을 훔쳐 거란으로 다시 달아난 적도 있다. 발해가 멸망한 뒤인 1038년에는 발해 유민들이 많이 살던 遼의 東京留守였던 蕭孝忠이 건의하여 발해인들의 擊毬 금지조치를 해제시켰다. 東京이 중요한 군사기지인데 격구를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군사훈련을 하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한 발해인들은 용맹스러워서 “발해인 세 사람이 호랑이 한 마리를 당

해낸다”는 말이 외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발해인들은 즐거울 때에 춤을 추었다. 송나라 王曾이 기록한 글에 따르면, “발해 풍속에는 歲時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논다. 먼저 노래와 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여러명 앞에 내세우고 그 뒤를 士女들이 따르면서 서로 화답하여 노래 부르며 빙빙 돌고 구르고 하는데 이를 踏籥(답추)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 시골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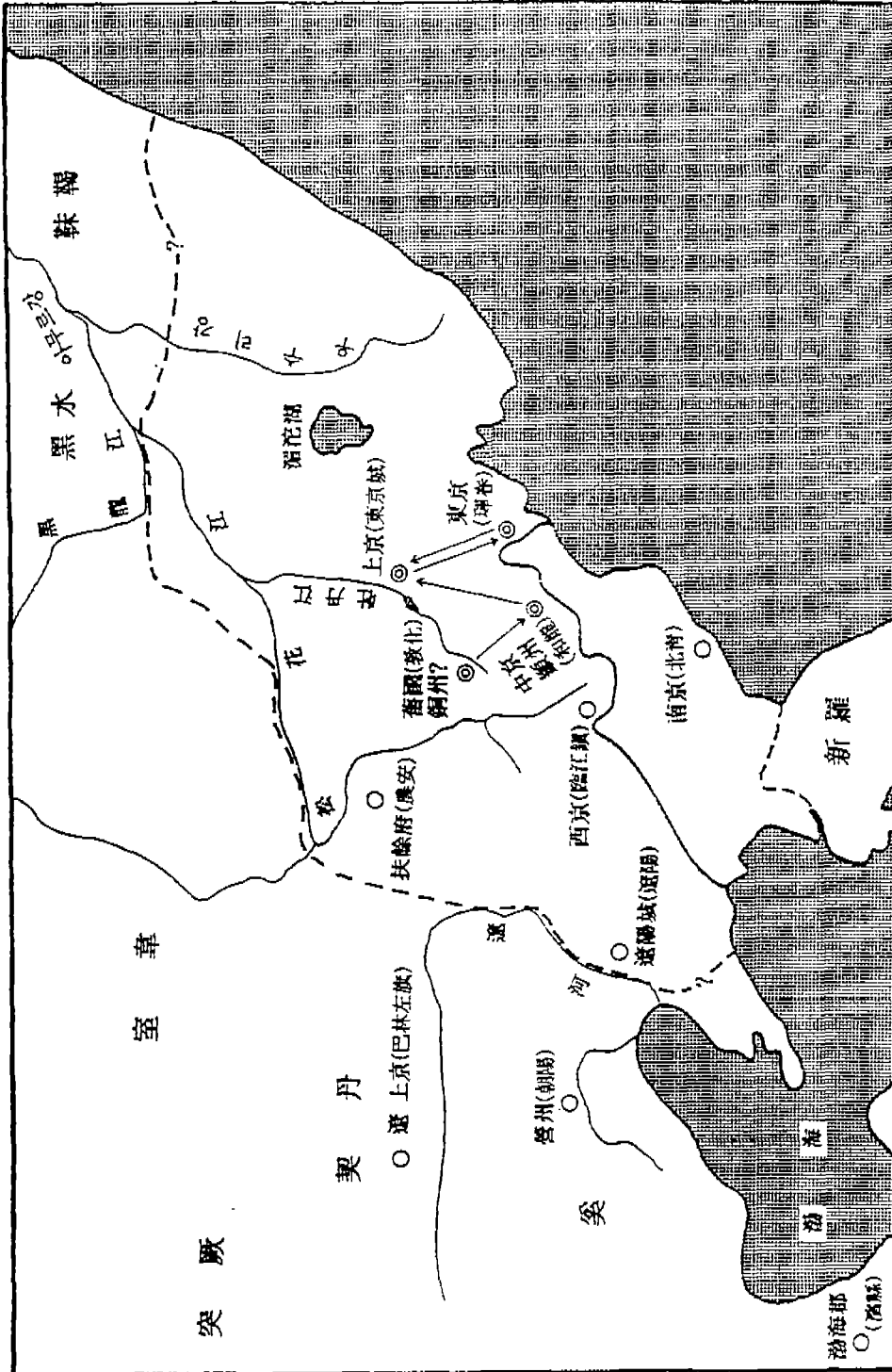
발해인들의 禮法에 관한 기록도 있다. 송나라 태조가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비천한데, 어째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지만 여자는 그러지 않는가를 물었던 적이 있다. 이에 王貽孫이 張建章이 지은 「渤海記」를 근거로 하여서, 옛날에는 남녀 모두 무릎을 꿇어 앉았는데, 측천무후 때부터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이 때 발해의 경우를 예로 들은 것으로 보아서 발해에서도 이러하였던 듯하다.

그리고 928년에 발해 유민 隱繼宗이 고려로 투항해왔을 때에 고려 태조 앞에서 3拜를 하자 사람들이 失禮를 범하였다고 수근댄 적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나라를 잃은 신하는 3배를 하는 것이 옛날부터의 예법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후대까지도 은계종이 예법을 잘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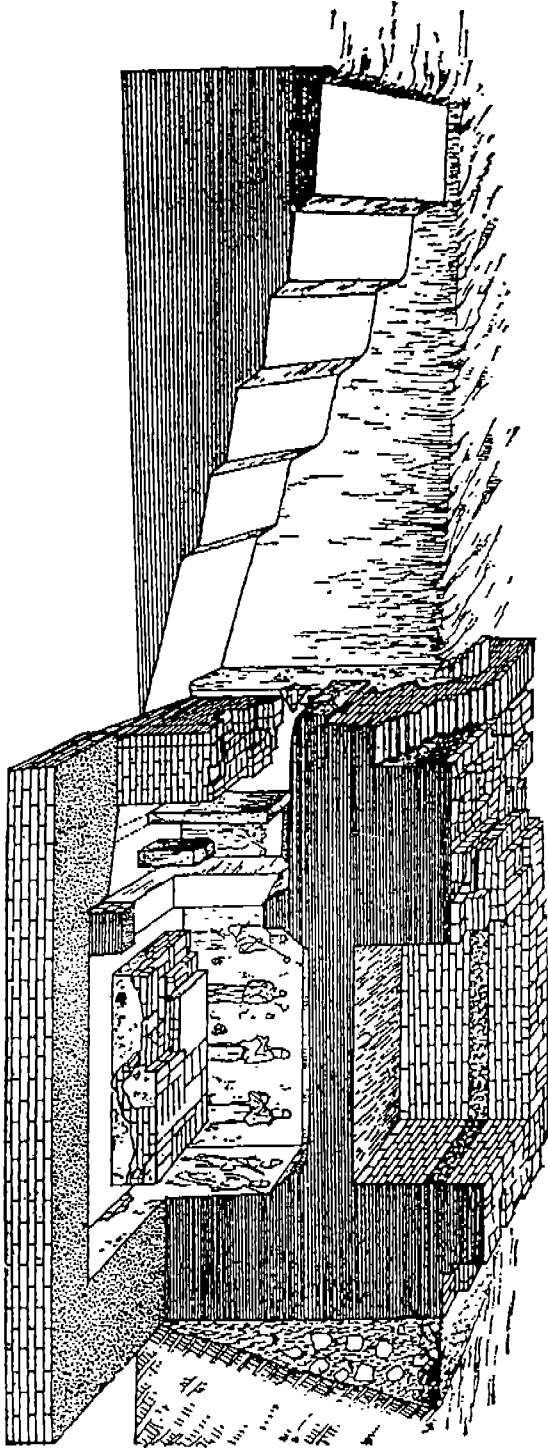
한편 요동반도로 강제로 옮겨진 발해 유민들은 부자집에서 牡丹을 즐겨 키웠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대량으로 사갔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薩多羅라는 승려가 꽤 지나 새의 소리에 능통하여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이한 전승도 있다. 지식인들은 시와 글을 지어 풍류를 즐겼으며, 중국에 유학을 가서 賓貢科라는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돌아와 출세하기를 꾀하였던 것은 지금이나 예나 동일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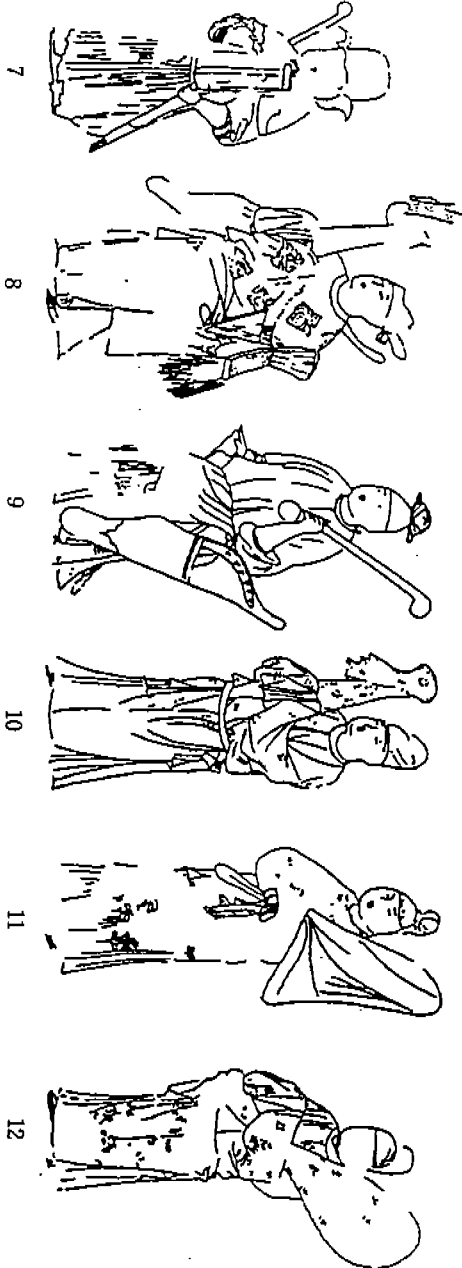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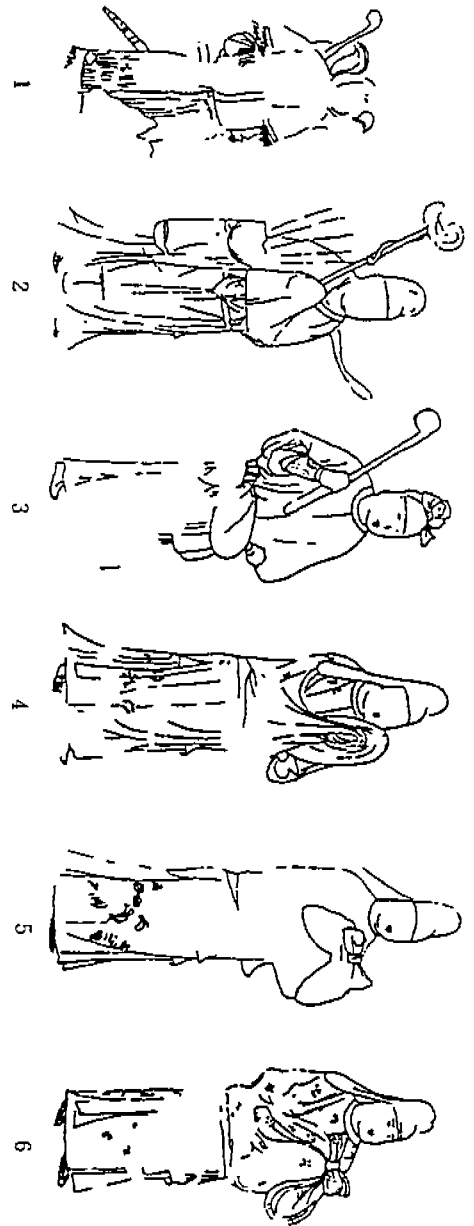
- 1)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社會科學戰線』1982-1
- 2) 池升元, 「淺談渤海貞孝公主墓壁畫」『延邊文物資料匯編』1983
- 3) 延邊博物館 金필소조, 「延邊文物簡編」고대문화유물편 제6장 발해시기, 延邊人民出版社, 延吉, 1989
- 4)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吉林省志」권43 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1991
- 5) 송기호, 「발해를 찾아서 -만주, 연해주 답사기-」술, 1993
- 6) 김민지 이순원,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 -정효공주묘 벽화를 중심으로-」『生活科學研究』18,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1993
- 7)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II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靑銅甬)을 중심으로-」『韓國服飾學會誌』22, 1994
- 8)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潮閣, 1995
- 9) 小嶋芳孝, 「渤海人の肖像」石川考古學研究會1996年新年例會發表資料, 1996. 1. 13.



(口圖) 遼東契丹國地圖



(그림 2) 정효공주 무덤



(그림 3) 정유공주 무덤 벽화

1. 연도 동벽 무사(문지기)
2. 북벽 왼쪽 시종
3. 동벽 시위
- 4, 5, 6. 동벽 제2, 3, 4인 내사
7. 연도 서벽 무사(문지기)
8. 북벽 오른쪽 시종
9. 서벽 시위
- 10, 11, 12. 서벽 제2, 3, 4인 약사